

“신안군, 세계적 정원 관광지 가능성 확신”

신안정원수협동조합 해외 연수

‘세계적 꽃피는 1004섬’ 조성 앞장
조합원 27명 중국 귀양·나평 탐방
유채꽃단지 등 관광 우수사례 견학
박영철 이사장 “조합원 전문성 강화”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27명은 최근 3박5일 일정으로 중국 귀양·나평을 찾아 대규모 식재 관리 현황과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탐방했다.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제공>

“거대한 자연경관을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선진 사례를 보며 우리 신안군이 세계적인 정원 관광지로 나아가 방향과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세계적 꽃피는 1004섬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3박5일 일정으로 중국 귀양·나평 일원에서 ‘해외 선진지 연수’를 실시했다.

17일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조합원의 정원수 생산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신안군이 추진하는 ‘세계 최대 섬 정

원’ 및 ‘1도 1유지’ 섬별 테마정원 조성을 위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연수에는 박영철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과 관계자 등 27명이 참여했으며,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와 정원 모델로 주목받는 중국 서남부의 중경·귀양·나평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방했다.

참여 조합원들은 자연경관 관광지인 나평 유채꽃 단지와 겸령산 공원, 쌍용생태공원 등 지역 정원 및 경관 조성지를 방문해 대규모 식재 관리 현황과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꼼꼼히 견학했다.

특히 광활한 유채꽃 단지는 자연경관을 관광 산업으로 연결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신안군이 추진 중인 ‘1섬 1정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앞서 정원수협동조합은 이 같은 선진 사례 도입을 위해 지난해 중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해외 연수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중요·양묘 생산지와 정원수 재배 현장을 방문해 밀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초빙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원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헌신적인 노력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묘목 공급처를 넘어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공동체 회복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박영철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해외 선진지 연수와 국내 현장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의 전문성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 사례와 기술을 접목해 신안군이 세계적인 정원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포스트 NPM 공공 리더십’ 주목



김호균(사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포스트 신공공관리(NPM) 시대 공공리더십의 새로운 이론 모델을 제시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김 교수의 논문 ‘효율성에서 역설로: 포스트 NPM 시대 공공가치 리더십의 3축 모델’이 공공 리더십 분야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Leadership (IJPL)’에 게재됐다.

공공가치와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공공리더의 역할을 재정의한 이번 연구는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공공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포스트 NPM 시대 공공 리더가 갖춰야 할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규범적 지향 ▲관계적 실천 ▲시스템적 역량을 꼽았다.

에메랄드 퍼블리싱(Emerald Publishing)이 발행하는 IJPL은 공공 분야의 리더십 이론과 실무를 다루는 국제 학술지로, 지난 10일 최종 게재 승인을 받아 출간을 앞두고 있다. /박선욱기자



나주 영강동 지역발전협 재출범

나주시는 “최근 영강동 지역발전협의회가 출범식을 열고 김하진 제3대 회장 취임과 함께 민간 협력체로서의 활동을 본격 재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출범식은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최명수 전남도의원 등 주요 내외빈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2017년 출범한 협의회는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해산했다가 다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

협의회는 재출범을 기념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영강동 행정복지센터에 쌀 10kg 20포대를 기탁했다.

김하진 신임 회장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영강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화합과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나주=정준환기자



광주 서부경찰,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17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서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협업해 스마트경로당 화상 플랫폼을 이용한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의 반응 속도와 판단력 저하 등 신체적 행동 특성을 고려해 교통경찰의 경로당 방문과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 시청을 병행해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보행 3원칙인 ‘멈춰서, 살피고, 건너기’를 비롯해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무단횡단 금지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며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광주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결혼

▲양홍렬(광주매일신문 지역특집부 국장)·이상희씨 아들 다훈군, 김태군·최지연씨 딸 민경양=21일(토) 오후 6시 순천 더혜음 웨딩홀 르뉴아홀.

‘결핵환자 헌신’ 故 여성숙 전 목포의원 원장 추모 발길

복지부·목포시의사회 등 조문

고인 기리고 유가족 슬픔 위로

평생을 결핵 환자 치료와 공동체 돌봄에 헌신하며 참된 인술을 실천한 고(故) 여성숙 전 목포의원 원장을 추모하는 발길이 잇따랐다.

17일 오후 보건복지부 관순현(사진 왼쪽) 의료정책국장과 성장현 의료정책과장, 하태진 간호정책과장, 박영은 건강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목포효사랑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또 목포시의사회 김명원 회장과 황다윗 총무 이사도 함께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고인은 1962년 목포에 목포의원을 개원한 이래 사재를 털어 무안 삼향읍에 한산촌을 조성하

며 결핵 환자 요양과 치료에 평생을 바쳤다.

국가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척박한 시절에도 환자들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료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었다.

이 같은 고인의 헌신은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가치를 수습한 앞서 몸소 실천한 선구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998년 80세의 나이로 병원 문을 닫은 뒤에도 한산촌에 머물며 소박한 삶을 이어온 고인은 전 날 노환으로 별세했다.

한편, 조문을 마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목포시 통합돌봄 간담회와 목포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의료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청년농업인 소통협의회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는 17일 소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청취한 후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및 농산업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보성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및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720농가에 33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 /보성=임병연기자

올해부터는 청년농 대상 선입대후매도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호 지사장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농지은행사업 지원을 하겠다”면서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마약 없는 전남 만들기’ 토크콘서트 성황

전남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는 17일 국립순천대학교 문화 강당에서 도내 회복 중인 중독자와 가족, 보건교사, 대학생,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ZERO, 마약 없는 전남 만들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재발 중인 마약 중독자 가족, 회복 중인 중독자, 중독자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중독은 혼자 빠지지만, 회복은 함께할 때 가능하다’를 주제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회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재활의 중요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행사장에서는 마약 중독 예방 홍보부스도 운영돼 참가자들의 관심이 모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약 중독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시원기자

순천시-BBQ, 1천실 규모 특급호텔 건립 ‘맞손’

순천시는 “최근 정월위케이션센터에서 전남도, 제너시스BBQ 그룹과 ‘특급호텔 건립’ 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너시스BBQ는 오는 2031년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부지에 최대 1천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제회의가 가능한 대형 컨벤션센터와 워터파크 등 복합 관광 인프라가 함께 조성돼 최대 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시는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를 수용할 고품격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양홍렬기자



순천 출신인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역시 K-푸드의 세계적 성공을 마중물 삼아 고향을 광주·전남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하며 투자에 힘을 실었다. /순천=양홍렬기자



법무법인 인의로 ‘사랑의 배식 봉사’ 17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와 법률봉사단 변호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인의로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인의로 적십자봉사단사회는 광주적십자봉사관 무료급식소를 찾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0인분의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김애리기자